規則再配列과 自由交替*

田　　相　　範
(서 울 大 學 校)

Kiparsky가 *Phonological Change*(1965)에서 처음 言及한 以來 規則再配列(rule reordering)은 지금까지 많은 關心의 對象이 되어 왔다. 時間을 달리하는 A와 B 두 stage의 文法의 差異를 說明하는 하나의 方法으로서 그는 規則再配列이라는 새로운 槪念을 導入한 것이다.

흔히 引用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독일語의 경우이다. 즉 우리는 여러가지 記錄을 통해 다음과 같은 두개의 規則이 각기 時期를 달리하여 독일어에 들어온 것을 알고 있다.

(1) 語尾子音無聲化規則(Terminal Devoicing Rule)

$$[+\text{obst}] \rightarrow [-\text{voice}] / \text{——} \#$$

(2) 母音長音化規則(Vowel Lengthening Rule)

$$V \rightarrow [+\text{long}] / \text{——} \begin{bmatrix} +\text{obst} \\ +\text{voice} \end{bmatrix}$$

規則(1)은 方言에 따라 900—1200年 사이에 들어왔으며 그 結果 語尾의 子音은 모두 中和되어 /bund/ 'bond'나 /bunt/ 'various'가 모두 [bunt] 한가지로 發音하게 되었다. 規則(2)는 약 1400年頃에 독일語 文法에 追加되었으며 그 結果 지금까지 짧게 發音되던 有聲子音 앞의 母音들이 모두 길어지게 되었다. 또 이 두 規則의 適用順序도 이들이 독일語 文法에 들어온 順序와 一致하여 /lob/ 'praise'와 /lob+əs/는 15, 6 世紀頃엔 각각 [lop]와 [lo:bəs]로 發音되었는바 그 生成은 (3)이 보여주는 바와 같다.

(3) /lob/ /lob+əs/

lop	——	TD
——	lo:bəs	VL
[lop]	[lo:bəs]	Opt(=Output)

그러나 現代독일語에 와서는 이들의 發音이 각각 [lo:p]와 [lo:bəs]로 變하였다. 이와같은 變化는 어디에 起因하는 것인가. 言語의 變化를 文法의 變化에 歸着시키는 生成音韻論에서는 이와같은 變化가 14, 5 世紀에 있던 두 規則 (1)과 (2)의 順序가 現代에 와서는 (2)—(1)로 再配列된 탓이라고 說明한다. 現代形인 [lo:p]와 [lo:bəs]의 生成過程은 (4)가 보여주는 바와 같다.

---

* 本稿의 執筆過程에서 筆者는 李秉建·梁東暉·金寅淑 敎授들과의 討論에서 示唆받은 바가 크며 또 中世國語資料蒐集에서는 金亨奎先生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폐끼친 바가 많다. 이 자리를 빌어 謝意를 表한다.

(4) /lob/ /lob+əs/

loːb	loːbəs	VL
loːp	——	TD
[loːp]	[loːbəs]	Opt

Phonological Change 에서의 Kiparsky의 關心은 주로 이와같은 再配列의 方向(directionality)에 관한 것이었다. 다른 많은 再配列의 경우를 觀察한 끝의 그의 結論은 規則再配列의 方向은 有標順序(marked order)로부터 無標順序(unmarked order)로 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無標順序란 (5)가 보여주는 것같은 自給的順序(intrinsic order)를 말하는 것이다.

(5) 1. [ ] → [αF]
2. [αF] → [ ]

同時에 無標順序로된 規則들은 最多適用(maximal application)의 기회를 갖게 되는바 (3)에서는 두개의 規則 (1),(2)가 適用된 總回數가 둘임에 比해 無標順序로 適用된 (4)에서는 하나 더 많은 셋이 된 것이다.

이 槪念은 Kiparsky(1969)에 와서 새로히 導入된 給入·給外(feeding/bleeding)라는 槪念에 의해 더 精密해졌으며 結論的으로 그는 規則은 가능한 限 給入의 關係를 擴大하고 給外의 關係를 縮少시키는 方向으로 再配列된다고 말하고 있다. 圖式化하면 (6)과 같다.

(6) a. 給入關係의 極大化

A. [φ]> [ ] B. [ ]> [φ]
B. [ ]> [φ] > A. [φ]> [ ]

b. 給外關係의 極少化

A. [ ] > [∼φ] B. [φ] > [ ]
B. [φ] > [ ] > A. [ ] > [∼φ]

요즈음 사용하는 術語를 빌리자면 逆給入(counter-feeding)의 關係는 給入의 關係로, 給外의 關係는 逆給外(counter-bleeding)나 給入의 關係로 再配列된다는 것이다.[1]

나중에 給入·給外의 槪念만으로는 說明할 수 없는 경우들이 發見되어 Kiparsky(1971)는 透明·不透明(transparency/opacity)이라는 槪念을 새로히 導入하게 되었다.[2]

言語變化 過程에서의 規則再配列의 例는 國語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訓民正音의 創製에 의해서 照射된 後期中世國語는 상당히 엄격한 母音調和를 보여주고 있었으나 이는 곧 이지러지기 시작하여 中世國語末期까지는 거의 初期의 엄격하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되었다. 母音調和 消失의 方向과 過程은 그 自體로서 하나의 독립한 硏究

[1] Counter-feeding, counter-bleeding 等의 槪念에 대해서는 Koutsoudas, A., G. Sanders, & C. Noll (1974), "The application of phonological rules," *Language* 50.2 參照

[2] Kiparsky(1973)에서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A process P of the form A→B/C—D is
opaque to the extent that there are phonetic forms in the language having either
(i) A in the environment of C—D, or
(ii a) B derived by P in the environment other than C—D, or
(ii b) B not derived by P(i.e., underlying or derived by another process) in the environment of C—D.

對象이 될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특히 規則再配列과 關聯되어 재미있는 것은 重刊杜詩諺解(1632)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現象이다. 즉 여기서는 主題格과 對格 語尾의 陰·陽對應形이 語幹이 子音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은/은, —을/—을 로 對應하고 있으나 語幹이 母音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母音의 性格에는 상관없이 從來의 —는/—는, —를/—를이 —는, —를로 統一되어 있다.[3]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7) a.	B+ʌn	tal+ʌn	(다른)
b.	B+ʌl	salʌm+ʌl	(사ᄅᆞᆷᄆᆞᆯ)
c.	NB+ən	kɯlɯm+ən	(구루믄)
d.	NB+əl	kɯlɯm+əl	(구루믈)
e.	B+nʌn	kətʌy+nʌn	(그디는)
f.	B+lʌl	pyəkay+lʌl	(벼개를)
g.	NB+nʌn	nyəy+nʌn	(네는)
h.	NB+lʌl	paykkɯ+lʌl	(백구를)

B=Back vowel; NB=Non-back vowel

(7g)와 (7h)는 母音調和規則에 의하면 각각 [nyəynən]과 [paykkɯləl] 이 되었어야 한다. 이와같은 現象의 가능한 說明方法을 檢討하기 위해서는 (8) (9), (10)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세개의 規則을 紹介해 둘 필요가 있다.

(8) 重母音化規則(Diphthongization Rule)

$$i \rightarrow y / \begin{bmatrix} V \\ -front \end{bmatrix} \text{——}$$

規則 (8)에 의하여 母音뒤에 나타나는 /i/는 半母音化하여 앞의 母音과 합쳐 重母音이 된다.

(9) 母音調和規則(Vowel Harmony Rule)

$$\begin{bmatrix} V \\ -front \end{bmatrix} \rightarrow [\alpha \text{ back}] / \begin{bmatrix} V \\ \alpha \text{ back} \\ \begin{Bmatrix} [-front] \\ [+front] \end{Bmatrix} \begin{matrix} (a) \\ (b) \end{matrix} \end{bmatrix} [-syl] + \text{——}$$

: (b) = optional

規則 (9)에 의하여 語尾가 母音으로 시작되며 그 母音이 /i/가 아닌 경우, 그 母音은 語幹의 마지막 母音(重母音인 경우에는 y 앞의 母音)에 따라 陰·陽의 어느 하나의 形態를 취한다.

---

[3] 李崇寧(1955:89—96). 한편 筆者는 後期中世國語의 일곱개 母音의 feature matrices를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	우	으	어	오	ᄋᆞ	아
	i	ɯ	ə	ɜ	u	ʌ	a
high	+	+	—	—	+	—	—
back	—	—	—	—	+	+	+
front	+	—	—	—	—	—	—
low	—	—	—	+	—	—	+
round	—	+	—	—	+	—	—

(10) ㄹ/ㄴ 反復規則(Sonorant Reduplication Rule)

$$\phi \rightarrow \begin{bmatrix} +\text{son} \\ +\text{cons} \\ +\text{cor} \\ \alpha\ \text{nas} \end{bmatrix} / [-\text{cons}] + \text{——} \Lambda \begin{bmatrix} +\text{son} \\ +\text{cons} \\ +\text{cor} \\ \alpha\ \text{nas} \end{bmatrix} \#$$

規則 (10)은 語尾 /−ʌn/이나 /−ʌl/이 母音으로 끝나는 語幹뒤에 올때 語尾의 마지막 子音 /n/이나 /l/을 그 語尾 첫머리에 다시 한번 反復하는 規則이다. 規則 (10)은 後期中世國語에 있어서 母音調和 現象이 語尾가 母音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만 볼수있다는 一般性을 把握토록 해주어 母音調和規則을 簡單하게 해주고 있으며 同時에 調和를 이루는 語尾의 表面形이 CVC 일 때에는 왜 C_iVC_i로만 나타나는가 하는 것도 說明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調和를 일으키는 語尾에 왜 [−lʌn]∼[−lən], [−nʌl]∼[−nəl], [−ʌm]∼[−əm] 따위의 짝이 보이지않는가에 대한 說明을 해준다. (7g), (7h)와 같은 形態의 出現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說明이 可能하다. 첫째, (7g)와 (7h)가 例外라고 하는 說明이다. 다시말하면 /nyɜy/와 /paykku/라는 語幹이 전에 없던 [-Vowel Harmony Rule]이라고 하는 規則表示[rule feature]를 새로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說明이다. 그러나 이것은 만족할만한 說明이 못된다. 왜냐하면 하나의 語幹이 두개의 다른 規則表示를 가지거나 혹은 歷史的으로 그 規則表示를 바꿨다는 例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번째 가능한 說明은 母音調和規則 (9)에서 [−syl]을 [+cons]로 바꾸고 그 밑의 sub-zero를 떼버려 語幹의 子音을 必須的인 存在로 바꾸는 方法이다. 즉 規則 (9)를 (11)처럼 바꾸는 것이다.

$$(11)\quad \begin{bmatrix} \text{V} \\ -\text{front} \end{bmatrix} \rightarrow [\alpha\ \text{back}] / \begin{bmatrix} \text{V} \\ \alpha\ \text{back} \\ \left\{ \begin{matrix} [-\text{front}] \\ [+\text{front}] \end{matrix} \right\} \begin{matrix} (a) \\ (b) \end{matrix} \end{bmatrix} [+\text{cons}] + \text{——}$$

$$:(b) = \text{optional}$$

ㄹ/ㄴ 反復規則과 더불어 規則 (11)은 (1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7)에 나타나는 形態들을 生成하게 될 것이다.

(12) /tal+ʌn/	/kulum+ʌn/	/kətʌi+ʌn/	/nyəi+ʌn/	
——	——	kətʌy ʌn	nyəy ʌn	Diph
——	kulum ən	——	——	VH(11)
——	——	kətʌynʌn	nyəy nʌn	SR
[talʌn]	[kulumən]	[kətʌynʌn]	[nyəynʌn]	Opt

이와같은 解決方法이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새로 改正된 母音調和規則 (11)을 다시 한번 檢討해볼 必要가 있다. 본래의 規則 (9)의 경우에는 語幹末의 子音이나 半母音이 語幹母音의 語尾母音에 대한 영향을 방해하지 않았음에 反해 規則(11)의 경우에는 半母音만이 母音調和를 방해하고 있으며(cf. /nyəi+ʌn/) 母音調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語幹末母音과 語尾의 母音사이에 반드시 子音이 介在해야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는 音聲學的으로 正當化시킬수 없는 說明이라고해야 할 것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說明은 母音調和規則 (9)와 ㄹ/ㄴ 反復規則 (10)이 再配列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規則 (9) (10)이 初刊에서는 (9)—(10)의 順序로 適用되던 것이 重刊에 와서는

(10)—(9)의 順으로 再配列된 것이다. (13a)와 (13b)가 각각 初刊과 重刊에 있어서의 두 規則의 適用을 보여주고 있다.

(13) (a)

/tal+ʌn/	/kʉlʉm+ʌn/	/kətʌi+ʌn/	/nyəi+ʌn/	
——	——	ketʌy ʌn	nyəy ʌn	Diph
——	kʉlʉm ən	——	nyəy ən	VH
——	——	kətʌy nʌn	nyəy nən	SR
[talʌn]	[kʉlʉmən]	[kətʌynʌn]	[nyəynən]	Opt

(b)

/tal+ʌn/	/kʉlʉm+ʌn/	/kətʌi+ʌn/	/nyəi+ʌn/	
——	——	kətʌy ʌn	nyəy ʌn	Diph
——	——	kətʌynʌn	nyəynʌn	SR
——	kʉlʉm ən	——	——	VH
[talʌn]	[kʉlʉmən]	[kətʌynʌn]	[nyəynʌn]	Opt

(13a)의 (13b)로의 變化는 規則再配列의 方向에 대한 재미있는 示唆를 던져주고 있다. 우선 우리는 (13a)의 (13b)로의 移行을 最多適用의 法則(principle of maximal application)으로는 說明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13a)에서의 規則適用의 數는 (13b)에서의 回數보다 하나 더 많은 여섯이기 때문이며 또 /nyəi+ʌn/의 경우 (13a)에서는 母音調和規則 ㄹ/ㄴ 反復規則이 逆給外의 關係이지만 (13b)에서는 給外의 關係로 惡化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Kiparsky(1971)가 다시 透明·不透明이라는 새로운 槪念을 導入하지 않을수 없었다는 것은 이미 言及한바 있다. (13a)→(13b)의 移行이야 말로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13a)→(13b)로의 移行은 不透明으로 부터 透明으로의 移行이기 때문이다. (13a)의 [nyəynən]은 母音調和規則에 대하여 不透明함에 反하여 (13b)의 [nyəynʌn]은 透明하기 때문이다. 母音調和規則(9)는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에만 適用하도록 되어있는 까닭이다. 바로 이 現象이 語形劃一化(paradigm regularity)에 의해서도 說明될 수 있음은 注目을 要한다.[4]

規則再配列이 共時言語學의 舞台에 올라서게 된것은 方言의 差異 說明의 必要에서였다. 가령 方言 A와 方言 B가 같은 基底形(underlying form)을 가진다고 假定할때 많은 方言的 差異가 規則適用順序의 差異로서 說明되는 것이다. 例를 들면 Alsatian과 Low German에서는 day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각각 [taːk]와 [taːx]로 發音되는바 그 差異는 前述한 語尾子音無聲化規則 (1)과 또 하나의 規則인 摩擦音化規則 (14)의 서로 다른 適用 順序에 의해서 說明될수 있다.

(14) 摩擦音化規則(Spirantization Rule)

$$\begin{bmatrix} +\text{obst} \\ +\text{voice} \\ -\text{strid} \end{bmatrix} \rightarrow [+\text{cont}]/\text{V}\text{——}$$

(1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Alsatian의 경우에는 規則 (1)과 (14)가 (1)—(14)의 順序로, Low German에서는 (14)—(1)의 順序로 適用된 것이다.

---

[4] 筆者는 Cheun(1975 : 55—6)에서 transparency/opacity 보다는 paradigm coherence가 더 마땅한 說明임을 主張한 바 있다.

(15) Alsatian Low German

/tag/	/tag+ə/		/tag/	/tag+ə/	
taːg	taːg ə	VL	taːg	taːg ə	VL
taːk	——	TD	taːɣ	taːɣə	SP
——	taːɣə	SP	taːx	——	TD
[taːk]	[taːɣə]	Opt	[taːx]	[taːɣə]	Opt

지금까지 보아온 바와 마찬가지로 規則再配列은 言語變化와 方言의 差異를 說明하는데만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中世國語에는 이의 適用을 더욱 擴大시켜야 할것같은 다음과 같은 現象이 있다. 李崇寧先生의 「音韻論硏究」 426頁에는 다음과 같은 表가 실려있다.[5]

(16)

	Loc	V. Con	Nom II
uy	yᵊy	ya∼yᵊ	yum
ʌy	〃	〃	〃
ay	〃	〃	〃
ʉy	〃	yᵊ	yʉm∼yum
əy	〃	〃	〃
ᵊy	〃	〃	〃
i	〃	〃	〃

uy=ㅚ ʉy=ㅟ i=ㅣ
ʌy=ㆍㅣ əy=ㅡ
ay=ㅐ ᵊy=ㅔ

Loc=處格 V. Con=動詞連結辭 Nom II=動名詞語尾

(16)은 다음과 같이 읽힌다. 첫째, 處格語尾는 語幹이 二重母音으로 끝난 경우 그 母音의 陰・陽・中性의 區別없이 [yᵊy](예)하나로만 나타난다. 둘째, 動詞連結辭는 語幹이 陽性인 二重母音일 때에는 [ya](야)와 [yɜ](여)로 交替하나 陰性이나 中性일 때에는 [yᵊ](여) 하나만 나타난다. 셋째, 動名詞語尾는 動詞連結辭의 경우와는 반대로 語幹의 마지막 母音이 陽性의 二重母音일 때에는 [yum](욤)하나로만 나타나고 陰性의 二重母音 뒤에서는 [yum](욤)과 [yʉm](윰)으로 交替한다. 이와같은 分布上의 不均衡은 이들 語尾의 基底母音을 각기 /−ᵊi/, /−ᵊ/, /yum/ 잡음으로써 說明될수 있다.[6] 여기서 問題는 [ya](야)나 [yᵊ](여), 혹은 [yʉm](윰)이나 [yum](욤)의 交替를 어떻게 說明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들은 完全한 自由交替의 例들인양 싶다. 그 理由는 첫째, [ya]나 [yᵊ], 혹은 [yum]이나 [yʉm]의 交替가 같은 單語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7) tʌuyya(두외야) ∼ tʌuyyᵊ(두외여)
skʌyya(씨야) ∼ skʌyyᵊ(씨여)
pskᵊyyum(뻬욤) ∼ pskᵊyyʉm(뻬윰)

[5] (16)은 必要한 部分만을 拔萃하여 transcribe 한 것이다.
[6] 이와같이 基底形의 正當性에 대해서는 Cheun(1975 : 10—56)을 參照하기 바람.

təlɦəyyum(들에욤)~təlɦəyyʉm(들에윰)

둘째, 中世國語 方言에 대한 우리의 知識은 매우 微微한 것이지만 이들은 方言的 差異가 아닌상 싶다. 왜냐하면 한 單語의 交替形이 같은 作品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18) 利益 ᄃᆞ외여 깃부믈 뵈야 〈釋譜祥節 十九 3〉
ᄂᆞᆺ가ᄫᆞᆫ ᄂᆞᄆᆡ 죵이 ᄃᆞ외야 〈釋譜祥節 九 16〉

구둠과 저줌과 더움과 뮈욤等ᄀᆞᆮ고 〈圓覺經諺解 上二之二99〉
구루미 ᄃᆞᄅᆞ면 ᄃᆞ리 뮈윰 ᄀᆞᆮᄒᆞ니라 〈圓覺經諺解 上一之一10〉

이 交替形의 生成過程의 理解를 위해서는 (19), (21) 두개의 後期中世國語規則을 紹介해 둘 필요가 있다.

(19) 半母音形成規則(Glide Formation Rule)
i→y/C—+u

語幹이 子音 i로 끝난 경우 /u/로 시작되는 語尾가 뒤에 오면 /i/는 y로 變한다. 이는 hiatus 回避의 한 方法으로 理解된다. 例를 들면 (20)과 같다.

(20) /kʌli+um/ 'to shade'
kʌly um GF
[kʌlyum] Opt

/nʉki+ulita/ 'to pardon'
nʉki ʉlita VH
nʉky ʉlita GF
[nʉkyʉlita] Opt

(21) 半母音挿入規則(Glide Insertion Rule)

$$\phi \rightarrow y/\langle c\rangle \begin{bmatrix} -\text{cons} \\ +\text{high} \\ -\text{back} \end{bmatrix} + \text{——} \begin{bmatrix} \text{V} \\ \langle -\text{round}\rangle \end{bmatrix}$$

規則 (21)에 의하여 語幹이 重母音으로 끝나고 語尾가 母音으로 시작되는 경우 語幹과 語尾사이에 y가 挿入된다. 例를들면 /pʉi+um/ 'to vacate' 이 [pʉyyʉm] (뷔윰)으로 나타나는 따위다. 한편 語幹이 C_i로 끝날 때에는 語尾의 母音이 /u/가 아닌 경우에 限하여 語幹과 語尾사이에 y가 挿入된다. /suli+əi/ 'sound +Loc'가 [suliyəy] (소리예)로 나타나는 것이 그 例이다.

이들 規則이 이미 紹介한 中世國語의 다른 規則들과의 어떠한 相互作用아래 (16)이 보여 주는 것같은 分布上의 不均衡을 가져오는 것인가. 處格이 보여 주는 것 같은 劃一的인 語尾의 出現은 이미 言及한 세개의 規則, (8), (21), (9)를 (22)처럼 配列함으로써 說明할 수 있다.

(22) /nulai+əi/ 'song' /kʉi+əi/ 'ear'
nulay əy kʉy əy Diph
nulay yəy kʉy yəy GI

——	——	VH
[nulayyɜy]	[kɯyyəy]	Opt

半母音挿入規則과 母音調和規則은 給外의 關係에 있으나 表面形은 透明하다. 母音調和規則은 語尾가 母音으로 시작될 때에만 作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動詞連結辭의 경우는 위와 事情이 다르다. 例를 들어 /tʌui+ə/ 'to become'와 같은 基底形에 (22)와 같이 세 規則을 適用한다면 [tʌuyyə] (ᄃᆞ외여) 하나밖에 얻을수 없다. [tʌuyya] (ᄃᆞ외야)를 얻는 가장 經濟的인 方法은 (23)에서 보듯 母音調和規則과 半母音挿入規則을 再配列하는 것이다.

(23)

/tʌui+ə/		/tʌui+ə/	
tʌuy ə	Diph	tʌuy ə	Diph
tʌuy yə	GI	tʌuy a	VH
——	VH	tʌuy ya	GI
[tʌuyyə]	Opt	[tʌuyya]	Opt

語幹이 陰性重母音으로 끝나는 경우는 動詞連結辭가 [yə]하나만으로 나타나는 理由를 (24)가 說明해주고 있다.

(24)

/mɯi+ə/ 'to move'		/mɯi+ə/ 'to move'	
mɯy ə	Diph	mɯy ə	Diph
mɯy yə	GI	——	VH
——	VH	mɯy yə	GI
[mɯyyɜ]	Opt	[mɯyyə]	Opt

(24)가 보여주듯이 語尾와 語幹이 모두 陰性이므로 母音調和規則은 그 順序에 關係없이 空轉(vacuous application)하게 되며 따라서 表面形은 [mɯyyə] (뮈여) 하나만으로 나타나게 된다. (16)이 보여주는 것같은 分布上의 不均衡은 따라서 하나도 異常할 것이 없는 당연한 結果이다.

같은 說明이 動名詞에도 可能하다. 動詞連結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動名詞도 自由交替의 경우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많은 例들이 말해주고 있다.

(25) [picʰɯyyum] (뷔취욤)~[picʰɯyyɯm] (비취윰)
[tətəyyum] (드듸욤)~[tətəyyɯm] (드듸윰)
[hyəyyum] (혜욤) ~[hyəyyɯm] (혜윰)
[yəhəyyum] (여희욤)~[yəhəyyɯm] (여희윰)
[syəyyum] (셰욤) ~[syəyyɯm] (셰윰)
[pskəyyum] (뻬욤) ~[pskɛyyɯm] (뻬윰)
[təlɦəyyum] (들에욤)~[təlɦɛyyɯm] (들에윰)
[məyyum] (믜욤) ~[məyyɯm] (믜윰)
[səlməyyum](슬믜욤)~[səlməyyɯm] (슬믜윰)

陰性重母音뒤에서의 [yum]과 [yɯm]의 交替도 母音調和規則과 半母音挿入規則의 再配列로써 說明될 수 있다.

(26) /pɯi+um/ 'to vacate' /pɯi+um/ 'to vacate'

pɯy um	Diph	pɯy um	Diph
pɯy yum	GI	pɯy ɯm	VH
——	VH	pɯy yɯm	GI
[pɯyyum]	Opt	[pɯyyɯm]	Opt

動詞連結辭의 경우와는 反對로 動名詞의 경우에는 (16)에서 보았듯이 語幹이 陰性重母音으로 끝날 때만 語尾가 [yum]과 [yɯm]으로 交替한다. (25)에 列擧한 單語가 모두 陰性重母音으로 끝난 것은 注目을 要한다. 따라서 動名詞의 경우에는 語幹이 陽性重母音으로 끝날 때는 語尾가 [yum] 하나로만 나타난다. 그 理由는 (27)이 說明해주고 있다.

(27) /punai+um/ 'to send' /punai+um/ 'to send'

punay um	Diph	punay um	Diph
punay yum	GI	——	VH
——	VH	punay yum	GI
[punayyum]	Opt	[punayyum]	Opt

動詞連結辭의 경우와는 反對로 動名詞의 경우에는 語尾의 基底形이 陽性이므로 (27)의 경우처럼 語幹 語尾가 모두 陽性일 때에는 母音調和規則이 空轉하여 半母音挿入規則과의 順序에 상관없이 表面形은 늘 [punayyum] 하나로만 나타난다. 이로써 (16)이 보여주는것 같은 自由交替와 그 分布의 不均衡은 說明되었다.

中世國語에는 (16)의 경우외에도 (28)과 같은 또 다른 自由交替의 경우가 있다.

(28) [pʌyn](빈)~[pʌynʌn](빈는)

(28)에서 보는 것 같은 自由交替形은 이미 紹介된 ㄹ/ㄴ 反復規則과 (29)에서 紹介되는 中母音消去規則과의 相互作用에 의해 說明될 수 있다.

(29) 中母音消去規則(Mid Vowel Deletion Rule)

$$\begin{bmatrix} V \\ -\text{high} \\ -\text{low} \end{bmatrix} \rightarrow \phi\% \ [-\text{cons}] + \text{——}$$ [7]

ʌ나 ə는 形態素境界表示(morpheme boundary)를 사이에 두고 다른 母音과 隣接했을 때 消去된다. 이는 hiatus 回避의 한 方法이며 中世國語의 일곱 母音中 ʌ와 ə가 제일 값비싼 母音임으로 이들이 消去되는 것은 마땅하다. 規定에 의하여 規則 (29)는 (30)이 보여주는 두개의 規則을 縮約한 것으로 여기며 그 順序도 (30)에 表示된 바와 같은 것으로 여긴다.

(30) $$\begin{bmatrix} V \\ -\text{high} \\ -\text{low} \end{bmatrix} \rightarrow \phi / \left\{ \begin{matrix} [-\text{cons}] + \text{——} \\ \text{——} + [-\text{cons}] \end{matrix} \right\}$$

基底形 /sɯ+ʌlu/ 'hand+Instr'나 /ci+ʌm/ 'to lade+Nom I', /pu+ʌl/ 'to see' 따위가 각기 [sɯlu](수로), [cim](짐), [pul](불)로 나타나는 것은 規則(29)에 의한 것이다.

(28)의 交替形은 ㄹ/ㄴ 反復規則과 中母音消去規則의 順序再配列로서 說明될수 있으며 (31)

[7] %은 mirror image application의 表示로 使用되었다.

이 그 關係를 보여주고 있다.

(31) /pʌi+ʌn/	'boat'	/pʌi+ʌn/	
pʌy ʌn	Diph	pʌy ʌn	Diph
pʌy n	MVD	pʌy nʌn	SR
——	SR	——	MVD
[pʌyn]	Opt	[pʌynʌn]	Opt

이제 남은 課題는 첫째, (16)이 보여 주듯 自由交替가 어느 特定한 範疇(處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不均衡속의 不均衡의 原因을 究明하는 일과, 둘째, 自由交替가 가지는 言語學的인 意味의 究明이 될 것이다.

앞서 指摘한 바대로 處格의 경우에는 自由交替없이 處格의 語尾가 [yəy] 하나만으로 나타났으며 그때의 規則順은 (22)가 보여주듯 半母音挿入規則—母音調和規則의 順序였고 그 結果로 나온 表面形은 上記 두 規則에 대한 透明形이었다. 만약에 이 두 規則의 順序를 再配列하면 (32)가 보여주듯이 [nulayyay](노래얘)라고 하는 表面形이 나오며 그것은 母音調和規則에 대하여 不透明形이 된다.

(32) /nulai+əi/	'song'
nulay əy	Diph
nulay ay	VH
nulay yay	GI
[nulayyay]	Opt

前期中世國語에 대한 우리의 知識은 매우 보잘것 없어 推則의 段階를 벗어나지 못하나 이 時期에는 [nulayyay](노래얘)의 形態도 있지않았나 짐작된다. 알려지다싶이 訓民正音이라는 表記手段에 의해서 浮刻된 後期中世國語는 急激한 變化의 渦中에 있는 言語였으며 特히 母音調和의 崩壞는 그 代表的인 例였다. 만약에 前期中世國語나 혹은 古代國語에 [nulayyay]라고 하는 形態가 있었다고 想定한다면 [nulayyay]>[nulayyəy]의 變化는 不透明으로부터 透明으로의 變化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65年에 Kiparsky가 主張한 適用極大化의 法則(principle of maximal application)은 여기 맞지 않음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왜냐하면 [nulayyay]의 生成에 있어서는 母音調和規則과 半母音挿入規則이 逆給外의 關係로 適用되고 있는 反面에 [nulayyəy]의 生成에서는 두 規則이 給外의 關係로 適用되고 있기 때문이다. 一切의 給外의 關係가 透明形을 가져온다는 것을 想起할때 給入·給外와 透明·不透明이라는 두 原理의 相剋을 볼 수 있어 재미있다.

만약에 不透明>透明이라고하는 上記의 命題가 맞는 것이라면 이는 動詞連結辭의 경우 본래 있던 [ya]~[yə]의 交替形이 [yə]하나로 統一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tʌuyya]~[tʌuyyə]의 交替形이 [tʌuyyə]로 統一되었음을 말해준다. [tʌuyyə]는 母音調和規則에 대하여 透明하다. [tʌuyya]는 不透明하기 때문이다. 例가 不足하여 統計的인 言及이 困難하나 現代國語에서 [yə]의 現代形인 [yə]만이 남아있는 것은 그 解答에 대한 하나의 示唆가 된다. 例의 不足은 動名詞의 경우 한층 더하다.

다만 재미있는 것은 [pʌin]과 [pʌinʌn]의 경우 이들의 關係가 (31)에서 보았듯이 相互給外(mutual bleeding)의 關係에 있으며 또 그 表面形이 모두 透明하다는 事實이다. 給入·給

外나 透明·不透明 어느 것으로도 그 輕重을 가늠하기가 困難하다. 이 點이 바로 오늘 날까지 [-n]~[-nɨn]의 交替形을 存在케하는 理由가 될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지금까지는 變化의 方向에 대하여 考察하였으나 問題는 如何히 하여 必要한 表面形을 끄집어 내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에 後期中世國語에 있어 半母音挿入規則과 母音調和規則이 列擧한 그 順序로 適用된다고 하면 [yəy], [yə], [yum]은 얻을수 있으나 [ya]나 [yɨm]은 얻을수 없다. [-əi]를 lexicon에 記載할 때 [-Vowel Harmony Rule]이라는 規則表示를 다는 것은 問題解決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半母音挿入의 必要가 없는 다른 경우, 즉 語幹이 重母音으로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əy]와 [-ay]로 交替하기 때문이다.

單하나의 可能한 解決方法은 後期中世國語의 音韻部에서의 半母音挿入規則과 母音調和規則이 지금 列擧된 順序라고 規定하고 다만 /-ə/나 /-um/은 lexicon에 記載할 때 그 反對의 順序와 自由交替한다는 것을 規則表示로 明記하는 것이다. 이는 窮極的으로는 하나의 個人方言에는 하나의 文法體系만이 可能하다는 前提下에 交替順序(alternative ordering)을 主張한 Fought(1973)와 그 軌를 같이 한다.

지금까지 考察해 온 分布上의 不均衡의 原因과 生成이라는 問題와 關聯지워 究明해야할 둘째 課題는 自由交替라고 하는 現象이 가지는 言語學的인 意義다. 自由交替를 規則再配列과 結付시킨 Fought(1973)의 論文은 이 問題를 다룬 가장 重要한 것으로 記憶된다. 그는 하나의 informant에서 x-y, y-x 두개의 規則順이 共存함을 證據로 들어 自由交替가 社會階層(social stratification)의 差異에서 온다는 생각을 排擊한다(77-8). 그가 對象言語로 잡은 Chorti의 한 informant로부터 [ˈiʔiˈˈʔti] 'you are trying'과 [ˈiˈuiˈˈʔti] 두개를 얻을수 있었음을 證據로 이 두개의 다른 表面形은 人稱接頭辭의 끝 半母音 &를 具現하는 規則과 母音사이에서 h를 消去하는 두개의 規則이 各己 그 順序를 달리하여 適用된 경우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上記 交替形의 生成은 지금까지 提案된 asymmetric한 linear ordering이나 同時適用(simultaneous application) 어느 것으로도 不可能하며 다만 symmetric 한 交替適用(alternative ordering)에 의해서만 可能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Chomsky와 Halle가 *Sound Pattern*에서 提案한 規則適用方式에 含蓄된 asymmetricity의 잘못을 證明했다고 主張한다(67). 이리하여 Fought는 한 文法體系속에서의 規配再配列을 主張하고 있다.

이와 같은 態度에는 몇가지 問題點이 있다. 우리는 앞서 現代독일語의 두 方言, Alsatian과 Low German의 差異를 規則順序의 差異로 說明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이때 결코 現代독일語에서 規則(1)과 (14)가 交替適用되어 [taːk]와 [taːx]의 두 交替形을 얻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Alsatian과 Low German을 各己 文法을 달리하는 別個의 體系로 보고 다만 그 差異를 規則順序의 差異로 說明했을 따름이었다. 이같은 說明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면 個人方言의 差異도 마찬가지로 說明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두 사람이건 完全히 同一한 言語能力(linguistic competence)를 가질 수는 없다. 그 證據로 주어진 어떤 文章의 文法性(grammaticality)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事實을 들 수 있다. 이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文法이 같지 않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 때 두 個人方言이 보여주는 差異의 많은 部分을 規則再配列로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言語分析의 最終段階가 方言이나 혹은 個人方言이라면 Fought의 主張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個人方言도 경우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때 이 다른 모양을 가령 $S_1, S_2, S_3 \cdots S_n$ 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差異를 어떻게 說明할 것인가. S_1과 S_2가 各己 다른 文法體系의 所產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의 個人方言도 여러개의 다른 文法體系의 集合이라는 推象的 存在가 되며 話者는 그 여러개의 文法體系를 경우에 따라 가려쓰고 있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두개의 다른 方言 D_1과 D_2의 差異를 規則再配列로 說明했듯이 우리는 S_1과 S_2의 差異(例를 들면 (ᄃᆞ외야)~(ᄃᆞ외여))를 規則再配列로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說明方式은 모든 言語的인 差異를 文法의 差異로 보고 方言의 差異, 個人方言의 差異, 또 같은 個人方言에서도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모양을 各己 다른 文法體系의 具現이라는 前提下에 規則再配列을 그 하나의 方法으로 使用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後者의 態度를 方言과 個人方言까지만을 文法體系의 差異로 說明하고 S_1 S_2의 差異는 한 體系안에서의 두 規則의 交替適用으로 說明하려는 Fought의 態度보다는 보다 一貫性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問題가 되는 것은 後者의 경우 選擇規則(optional rule)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다. 現代國語에는 母音사이의 /h/를 選擇的으로 消去하는 規則이 있어 /coh+in/ 'good'이 때로는 [cohin]으로, 혹은 [coin]으로 나타나는 바 後者의 主張을 여기다 適用시키면 이 두 表面形은 두개의 다른 文法體系의 所產으로서 [coin]을 生成한 文法에는 h 消去規則이 들어 있고 [cohin]의 文法에는 그런 規則이 없다는 結論이 된다. 이와같은 主張은 選擇規則의 存在自體를 全面的으로 否定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同意性(synonymity)의 把握을 全的으로 拋棄하는 것이다. 勿論 이때 우리는 [cohin]과 [coin]은 formal/informal 이라는 文體的 差異때문에 完全히 同一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同意性이 없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同意性을 얘기할때 唯一한 근거로 삼아온 truth value라는 것은 어떻게해야 하는가의 問題가 남는다. Truth value를 한 style 안에서만의 問題라고 하면 [pʌyn]과 [pʌynʌn], [cohin]과 [coin]의 問題는 解決되지만 [tʌuyya]~[tʌuyyə]의 差異는 文體的 差異가 아닌상 싶어 問題는 여전히 남는다. 中世國語의 微妙한 뉴앙스까지는 알 수 없어 斷言키 어려우나 現代國語의 [patara](받아라)~[patəra]와 같은 경우와 같은 것이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이 때 우리는 하나의 個人方言 속에 新舊 두 體系의 文法이 共存해서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8] 音韻論에도 選擇規則이 있는가의 問題는 完全히 꼭 같은 두개의 表現은 없다는 社會言語學의 命題와 또 生成意味論이 結局엔 이르게될 選擇規則의 否定이라는 것을 아울러 생각할때 그 存在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이 問題는 本稿의 限界를 벗어나는 것으로 여겨 未解決의 狀態로 남겨 두고저 한다.

지금까지 本稿는 첫째, 生成音韻論에 導入된 規則再配列의 槪念을 槪觀하고, 둘째, 言語變化의 說明方法으로서의 이의 利用을 알아보았고, 셋째, 그의 주된 關心은 그 方向性의 問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넷째, 그것이 共時的인 現象에 適用될 때는 주로 方言의 差異를 說明하는 데에 使用되어 왔다는 것을 보아왔다. 끝으로 本稿에서는 方言의 差異를 說明하기 위한 規則再配列의 利用을 擴大하여 個人方言의 差異및 自由交替에 대한 利用 可能性도 檢討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Fought가 主張하듯 自由交替를 한 文法體系안에서의 두 規則의 交替適用의 例로 볼것이 아니라 다른 文法體系의 具現으로 볼 것을 提案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音韻論에서의 選擇規則의 否定이라는 問題와 關聯지워져 있음도 아울러 示唆하였다.

---

[8] 李秉建敎授가 이와같은 主張을 하고 있다. (私談)

REFERENCES

李崇寧. 1955. 音韻論硏究. 서울: 民衆書館.

Cheun, S. B. 1975. Phonological Aspects of Late Middle Korean. Seoul: Pan Korea Book Corporation.

Chomsky, N. and M.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and Row.

Fought, F. G. 1973. Rule ordering, interference, and free alternation in phonology. Language 49. 67-86.

Kiparsky, P. 1965. Phonological Change. MIT dissertation. IULC.

_____. 1968. Linguistic universals and linguistic change. In Bach and Harms (eds.),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_____. 1971. Historical linguistics. In Dingwall, A Survey of Linguistic Science. University of Maryland Press.

_____. 1973. Abstractness, opacity, and global rules. In Cheun, *et al.* (eds.), Current Papers i. Linguistics IV. Seoul: Kwang Moon Sa.

ABSTRACT

Rule Reordering and Free Alternation

Sang-buom Cheun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Kiparsky(1965), rule reodering has been instrumental in accounting for language change and dialectal differences. So far the concern of generative phonologists has centered around the directionality of rule reordering. Several notions have been introduced for the explanation, e.g., marked/unmarked order, the principle of maximal application, feeding/bleeding, transparency/opacity, paradigm regularity, etc.

In synchronic scene, rule reordering has been used in explaining the dialectal differences. However, there are interesting cases of free alternation where the only systematic and economical way of explanation seems to be rule reordering. In this case, the free alternation can be observed in one and the same informant as well as among different speakers.

Late Middle Korean also abounds in the examples of free alternation. For example, both [tʌuyya] 'to become' and [tʌuyyɜ] appear in the same work. These surface forms can be produced most economically by applying two rules, Vowel Harmony Rule and Glide Insertion Rule, in alternate order to the underlying form /tʌuy+ɜ/.

For these kinds of examples, Fought(1973) proposed symmetric alternate ordering as opposed to the asymmetric linear ordering proposed by Chomsky and Halle(1968). Fought claims that the alternate ordering of two rules, a-b and b-a must be allowed in one grammatical system.

Fought's claim, however, lacks necessity and consistency. In accounting for dialectal differences of a language, we did not say that the language had two rules applying in alternate order to produce the different dialects. Rather we took the dialects as totally different two grammatical systems and we accounted for the difference by different rule orders. Idiolectal differences could also be explained through reodering. Likewise, the free alternation can be taken as the manifestation of two different grammars. In other words, a speaker has several sets of grammar where same or different rules are ordered differently. The speaker may choose one of the sets according to the situation, the results of which being the surface free alternation.